

#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척도개발 및 타당화 예비 연구 - 11, 12세 아동을 중심으로

A Preliminary Study on a Prosocial Behavior Scale for  
11 -to 12- year old Korean Children

정희원(Hee Won Jung)<sup>1)</sup>

김경연(Kyong Yeon Kim)<sup>2)</sup>

## ABSTRACT

The present study explored the dimensionality of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An instrument for assessing prosocial behavior was developed with 8 variables(orientation for prosocial values, caring, comfort and social equality, helping, harmony among peers, cooperation, donation, sacrifice and concession) using a 5-point scale of 37 items. The reliability for the scale of 8 variables ranged from .75 to.86 by Cronbach's. Construct validity was indicated by self-report, peer rating, and teacher rating.

**Key Words** :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 척도개발(scale development), 척도간 상관(correlations among prosocial behavior scales).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은 폭넓은 개념으로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모든 자발적인 행동이며, 개인적 편리나 이익과 타인의 목표사

이에서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일 때 후자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D. Wright, 1971). 아동의 정서적 발달,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형성 및 사회화에 있어 중요한 과정으로 간주(Eisenberg, 1992)되는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적 변화와 그 동기,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최근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여러 가지 일탈문제, 개인주의의 심화 및

<sup>1)</sup> 부산대학교 아동주거학과 박사과정

<sup>2)</sup> 부산대학교 아동주거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ee Won Jung,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Hou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30 Jangjeon-dong, Geumjeong-gu, Busan 609-735, Korea  
E-mail : chic88@hanmail.net

도덕성의 해이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집단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성경의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태복음 7장 12절)”와 불교의 자선 및 선행을 강조하는 교리에도 나와 있듯이 친사회적 행동의 역사적 뿌리는 깊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친사회적 행동에 관해 연구해 오고 있으나 이 분야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친사회적 행동의 정의와 구성요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Hoing과 Pollack(1990)은 친사회적 행동을 다음의 세 범주로 나누고 정의하였는데 첫째 나누기(sharing)는 타인에게 자신의 소유였던 무엇을 주거나 빌려주는 것, 둘째 돕기(helping)는 누군가를 도우려고 시도하는 것, 셋째 협동하기(cooperating)는 공동목적을 위해 함께 협동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Carlo와 Randall(2002)은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 및 사회적 영향에 중점을 두어 이타성(altruism), 순응적(compliant) 친사회적 행동, 정서적(emotional) 친사회적 행동, 공적인(public) 친사회적 행동 및 익명의(anonymous) 친사회적 행동으로 유형을 나누었다. 또한 Victor(1992)는 돕기, 나누기, 협력하기, 절충하기, 위로하기, 구원하기, 기부하기,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기 및 친사회적 가치의 지향 등 9가지 범주를 친사회적 행동에 포함시켰고, Bar-Tal(1979)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을 도와주기, 나누기, 기부하기, 인간의 복지, 관용, 동정하기 및 위로하기 등을, Mussen과 Eisenberg(1977)은 관용, 이타주의, 동정심, 물질적·심리적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 도와주기, 공유하기, 기부하기 및 사회적 부정의·불평등·잔인함 등

을 감소시키는 활동에의 참여 등을 친사회적 행동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구성요인을 포함하는 친사회적 행동의 정의를 살펴보면 먼저 협의의 개념으로는 “자신의 이득이나 외적인 보상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돕거나 이익을 주려고 하는 행동(Hoffman, 1982; Mussen & Eisenberg, 1977)”,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하기, 외적인 보상이나 벌에 관계없이 행동하기 및 자신에게 위험하거나 희생을 요구하는 행위(Moore, 1982)” 등이 있다. 광의의 개념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든 아니든, 자기 희생적이든 아니든 간에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것(Moore, 1982)”, “이타행동 같은 가장 비이기적인 행동에서부터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 동기화된 도움 행동까지 모든 범위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Rushton, 1976)”, “반사회적 행동의 반대개념으로서 광범위한 행동범주를 포함하는 타인을 이롭게 하는 행동(Bar Tal, 1976)” 등이 있다.

또한 동기에 관계없이 우연히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자발적 행동(Eisenberg, 1982)과 같이 행동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과 행동 뿐 아니라 동기를 강조하여 자신보다 타인을 이롭게 하려는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행해진 행동(Underwood & Moore, 1982)으로 정의하는 입장이 있다. 같은 친사회적 행동이라도 그 행동의 동기에 따라 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Eisenberg & Miller, 1991), 본 연구에서는 외부적인 보상에 대한 기대없이 타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을 친사회적 행동으로 정의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정의와 구성요인으로 개념화되는 친사회적 행동에 대해 국내외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이 외국의 정의와 구성요인을 인용하였으며, 측정방법에 있

어서는 외국의 친사회적 행동 척도(Eisenberg, 1989)를 참조하거나(이진숙, 1991), Bar Tal(1980)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단계에 따른 나눠주기 과제(신현옥, 1996; 장선희, 1991; 정현희, 1995) 및 Weir & Duveen(1981) 과 Doescher(1986)의 교사용 친사회적 행동검사를 번역·수정하여 사용(김지신, 1985; 박경자, 1999; 이해주, 1996)하거나 또래평정법(이영주, 1990)으로 측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친사회적 행동은 개인이 생활하는 사회문화적 환경 내에서 개인의 경험, 문화적 요소 및 사회적 맥락이나 환경적 압력을 포함하는 환경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Eisenberg & Mussen, 1989)을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의 문화와 상황에 적합한 친사회적 행동의 정의와 구성요인을 알아보고 문화에 맞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기존척도의 두 번째 제한점은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해 오고 있는 친사회적 행동의 측정방법들 간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대부분의 친사회적 행동연구에서 사용하는 측정방법들을 살펴보면 첫째, 자연관찰법이 있다. 이는 자연적인 학교 상황이나 집에서 아동의 일상적인 활동을 관찰하면서 주어진 시간 안에 도와주기나 공유하기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의 수행빈도를 측정하여 점수화하는 것이다. 결과의 안정성은 있으나,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는 상황적 측정(situational test)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나눠주기 과제라고 명명되어지는 것이다. 즉 친사회적이거나 이기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여 그 반응을 보는 것인데, 예를 들면 게임을 하거나 어떤 질문을 해서 상으로 사탕을 10개 준 후 이 사탕을 받지 못한 다른 친구에게 나누어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몇 개를 나누

어 줄 거냐고 물어보거나 나누어 줄 사탕만큼 상자에 집어넣게 하여 그 사탕수를 점수화하는 것이다. 또는 불우이웃을 위해 짐을 옮기려하는데 몇 묶음정도를 옮겨줄 수 있냐고 물어서 대답한 묶음수를 점수화한다. 그러나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관찰상황에서 보여지는 친사회적 행동이 일상생활에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것인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다. 세 번째는 평정법으로 주로 또래평정과 교사평정이 이용된다. 위험에 빠진 친구를 가장 잘 도와줄 것 같은 친구를 쓰라고 한다거나 반 아동의 이름목록을 준 후 각 아동의 평소 친사회적 성향을 점수화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평정법 역시 자발적인 사회적 상황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제한된 교실상황에서 아동을 관찰한다는 제한이 있고 평가하는 개인의 편견이 개입될 소지가 많다. 네 번째는 질문지법으로 자신의 평소 친사회적 반응과 수행을 스스로 기록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나는 무거운 짐을 옮기는 사람을 도운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의 리커드 척도에 응답하게 하는 것이다. 이 또한 실제 자신의 행동보다 더 이타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많다는 제한이 있다.

Hartshorne(1929)는 도덕적 행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면서 시험에서 킨닝하는 학생이라고 모든 상황에서 정직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 하였고, Rushton(1980) 역시 다양한 상황에서의 도와주기나 나누기 같은 친사회적 행동의 측정이 항상 높은 상관관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4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면 친구에게 사탕을 나누어주는 과제와 교사에 의한 친사회적 행동평정은 상관관이 높았으나(Rushton & Mussen, 1968), 학령 전 아동을 대상으로 실험실상황에서 도와주기, 나누기 및 협

동하기를 관찰한 것과 실제 자연상황에서의 관찰과는 의미있는 관련성이 없다고 하였다 (Iannotti, 1985). 이와 같이 기존의 친사회적 행동연구들은 연구된 행동유형이나 방식이 다르고, 독립적인 상황에서 연구되었기에 각각의 연구결과들을 비교한다는 것에 대한 타당성의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친사회적 행동 측정방법들간의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차원에서 각 척도들의 관련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이 주로 한 가지 측정방법만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해 온 경향이 있고, 같은 아동이라 하더라도 상황이나 정서상태 및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 친사회적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점(Hartshorne, 1929)을 생각해 볼 때 한 측정방법만으로 인간의 지속적인 성향을 예언하는 것은 무리라 생각된다. 또한 변화하는 시대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아동의 성향을 정확히 측정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각각의 측정방법들은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에 같은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측정방법을 시도하여 각 방법들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성이 적은 방법은 제외하여 더 정확한 친사회적 행동 측정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 아동으로부터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진술문을 수집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친사회적 행동의 구성요인을 알아보고 이에 합당한 문항을 구성하여 한국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설문지를 통한 친사회적 행동척도, 또래평정, 교사평정 및 나누기과제의 방법을 같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그들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여 측정방법과 평가자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위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친사회적 행동범주에 따른 문항의 타당도, 문항양호도 및 신뢰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동일아동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척도, 또래평정, 교사평정 및 나누기 과제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 II-1. 연구문제 1의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11세와 12세에 해당되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들이다. 이 시기는 다른 시기보다 내적 긴장과 환경적 압력에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나이(윤현희, 1998)이고 사회적 능력발달의 전환기(Gottman, Gonso & Rasmussen, 1975)이기에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적도연구에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부산시의 2개구를 임의로 선정하여 초등학교 5학년 4학급과 6학년 4학급의 교사 및 아동들을 표집하였다.

이와같은 절차를 거쳐 표집된 대상의 성별 학년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성별 학년별 분포

변 수	구 분	빈 도(%)
학 년	초등학교 5학년	110(52.4%)
	초등학교 6학년	102(47.6%)
성 별	남	111(52.4%)
	여	101(47.6%)

## 2. 척도구성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척도제작과 구성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2과정을 거쳤다.

첫째, 기존의 친사회적 행동척도 중 Eisenberg (1989)의 이타성 자기보고척도, Wrightsman, L. S.(1974)가 사용한 이타성 척도 및 Fey, W. F. (1995)가 사용한 타인수용(acceptance of others) 척도의 총 55문항을 비교 검토하여 한국의 10세 아동의 일상에 일어날 수 있고 보편적이며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문항들을 선택하여 총 20 문항을 수집하였다.

둘째, 기존 척도들에 포함되지 않은 문항들을 수집하기 위해 개방형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친사회적 행동의 보편적인 정의를 ‘내게 부담이 되거나 손해가 가더라도 타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행하는 자발적인 행동’이라 보고 초등학교 5, 6학년 144명을 대상으로 “내게 부담이 되거나 손해가 가더라도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한 행동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3가지를 적고 그 때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어보세요”라는 질문을 작성하였다. 예비조사 질문지를 작성하면서 별도로 초등학교 5학년 아동 3명을 대상으로 물어보아서 그 아동들이 답한 내용을 예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는 반대로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되는 친사회적 행동의 예를 적어보도록 하고 그때의 생각이나 느낌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두 가지 유형을 사용한 것은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영역이라 할지라도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했을 때 실제로 그 영역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과 기존의 친사회적 행동척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역 외에 다른 영역이 친사회적 행동척도에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셋째, 작성된 개방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예비 조사를 통해 수집된 144부에서 나타난 진술문을 다음의 단계를 거쳐 예비형 친사회적 행동 척도의 문항으로 작성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친사회적 행동의 범주를 참고로 하여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진술문들을 기록하고 분류하였다. 총 518개의 진술문 중 관련 없는 내용은 제외하고 중복되거나 아동의 실생활을 잘 반영하는 내용들을 분류하여 기존의 다양한 친사회적 행동 유형을 포함하는 10개의 행동유형과 기타로 분류하였다. 여기에 포함된 친사회적 행동유형을 살펴보면, 병구완 및 돌보아주기, 도와주기, 나누기(양보), 사회적 불평등·잔인함 등을 감소시키려는 활동, 협동, 자신의 책임수행, 관용, 위안(위로하기), 기부 및 친사회적 가치의 지향 등이다. 기타로 분류된 진술문은 총 32문항으로 개인의 사적인 경험에 관한 내용(엄마가 한 음식이 맛이 없었으나 맛있다고 해 주었다, 동생이 잘 때 이불을 꼭 덮어 주었다 등)으로 범주별로 구분하기가 곤란하였다. 이러한 개방형질문지의 분석과정을 거쳐 총 53문항의 문항을 추출하였고, 여기에 기존의 친사회적 척도에서 뽑은 20문항을 추가하여 총 73문항의 본조사용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전혀 아니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제작하였다.

## 3. 조사절차

본조사에 앞서 개방형 질문지를 이용한 예비조사로 2003년 6월 24일 부산시 초등학교 5, 6학년 각각 2개 학급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44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를 분석하고 기존의 친사회적 행동척도에 있던 문항을 추가하여 총 73문항의 본

조사용 설문지를 만들어 2003년 7월 8일과 9일에 걸쳐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에는 5, 6학년 8개 학급 아동 292명과 8명의 교사가 참여하였으나 교사의 불성실한 응답으로 2개 학급의 자료를 제외하였고 6개 학급의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총 212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SAS window 용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고, 척도의 문항양호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문항-전체간 상관계수,  $\chi^2$  및 Cramer's V계수를 산출하였다.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보다 타당한 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고자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 II-2. 연구문제 1의 결과 및 해석

#### 1. 문항선정을 위한 예비분석

총 73개 문항 중 친사회적 행동 척도의 문항으로 적합한 문항을 1차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다음의 과정을 거쳤다. 첫째, 각 문항의 평균, 전체 문항과 각 문항간 상관을 구한 결과 반응이 치우친 문항(문항 평균이 4.0 이상인 문항), 전체-문항 간 상관계수가 .40 미만인 문항 및 문항이 이해가 안 된다고 응답한 총 17개의 문항이 제외되었다. 둘째, 제외된 문항을 뺀 나머지 56개의 문항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절차는 사전 분류한 10개의 요인으로 구분되는 지 검증하기 위해 요인수를 10개로 지정하고 varimax방법으로 회전시켰다. 그러나 scree test와 누적분산율을 검토한 결과 요인수를 10개로 지정하였을 때보다 7개로 지정하였을 때 가장 적합한 문항구성을 이루었다. 요인분석결과 요인부하치 .40 미만인 문항과 .40 이상이나 다른 요인과 동시에 적재된 19문항을 제외시켰다.

위의 두 과정에 의해 제외된 문항은 36문항으로 나머지 37문항이 최종척도구성을 위한 분석에 사용되었다.

#### 2. 친사회적 행동의 유형과 타당도

친사회적 행동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37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요인구조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제시되어 있듯이 7개의 요인은 전체변량의 59.6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요인부하량은 .47~.82로 양호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전체변량의 28.34%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신의 이익보다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노력하며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친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친구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면 도와준다.', '가족이 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좋다고 말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친사회적 가치 지향'이라고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전체변량의 6.28%를 설명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신체적으로 아플 때 돌보아주는 행동으로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친구가 있으면 머리를 만져준다.', '부도님이 피곤해 하시면 안마해 드립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아픈 사람 돌봐주기'라고 명명하였다.

〈표 2〉 친사회적 행동 척도의 요인행렬표

문항	요인1. 친사회적 가치지향	요인2. 아픈사람 돌봐주기	요인3. 위안 및 사회 평등 실천	요인4. 돕기	요인5. 인화(人和)	요인6. 협동	요인7. 양보 및 자기희생	h2
19	.65							.60
22	.62							.65
35	.57							.66
16	.56							.77
9	.52							.67
28	.51							.82
34	.47							.65
23	.45							.47
8	.43							.57
54		.73						.69
32		.63						.51
10		.54						.68
13		.42						.60
42			.77					.71
50			.70					.68
31			.56					.52
11			.53					.71
29			.46					.74
51			.46					.77
36				.71				.58
15				.53				.73
21				.46				.55
49				.45				.59
44					.71			.72
41					.66			.69
40					.53			.63
52					.48			.79
14					.47			.70
53					.40			.61
17						.74		.64
33						.63		.75
43						.53		.67
24							.67	.69
38							.55	.66
27							.48	.75
1							.80	.68
39							.64	.62
고유값	12.09	2.67	2.48	2.12	2.12	2.01	1.92	
설명변량	28.34	6.28	5.82	5.19	4.98	4.70	4.33	
총설명변량	28.34	34.62	40.44	45.63	50.61	55.31	59.64	

세 번째 요인은 전체변량의 5.82%를 설명하는 것으로 기분이 상하거나 슬픔에 빠진 타인을 위로하고 동정심을 표현하여 정서적 욕구를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위안 및 사회평등 실천'이라고 명명하였다. 여기에는 사회적 불평등, 부정의 및 잔인함을 감소시키려는 행위도 포함되며 '다른 친구가 물건을 빼앗아 가면 다시 빼앗아 원래주인에게 돌려 준다', '친구나 동생이 울거나 맞으면 위로해 준다'와 같은 문항이 들어있다.

네 번째 요인은 전체변량의 5.19%를 설명하며 타인이 진행 중인 활동을 쉽게 해주고 타인의 욕구를 완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돕기'라고 명명하였다. '친구가 게임방법을 몰라 열심히 가르쳐 준 적이 있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된다.

다섯 번째 요인은 전체변량의 4.98%를 설명하고 있으며 사람들 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으로 '인화(人和)'라 명명하였다. 여기에는 '친구들이 싸울 때 싸움을 말리고 화해시킨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

된다.

여섯 번째 요인은 전체변량의 4.70%를 설명하며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다 같이 활동에 참여하여 모든 사람이 활동의 결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으로 '협동'이라 명명하였다. '내가 할 일이 많더라도 친구들과 같이 하는 모둠별 숙제에 열심히 참여한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된다.

일곱 번째 요인은 전체변량의 4.33%를 설명하는 것으로 타인을 위해 자신의 소유물이나 활동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소유물이었던 것을 주는 것으로 '양보 및 자기희생'이라 명명하였다.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심심해하는 친구나 동생을 위해 같이 놀아 준 적이 있다',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동생이나 친구에게 양보한 적이 있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된다.

이상으로 한국아동을 대상으로 한 친사회적 행동의 유형은 '친사회적 가치 지향', '아픈사람 돌봐주기', '위안 및 사회평등 실천', '돕기', '인화(人和)'와 '양보 및 자기희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요인 1 친사회적 가치지향 및 요인 2,

〈표 3〉 요인별 단계별 회귀분석

요인명	문항	문항이 추가된 후의 R <sup>2</sup>	요인명	문항	문항이 추가된 후의 R <sup>2</sup>	요인명	문항	문항이 추가된 후의 R <sup>2</sup>	요인명	문항	문항이 추가된 후의 R <sup>2</sup>
요인1	35	.55	요인2	54	.57	요인3	11	.51	요인4	15	.59
	22	.75		13	.82		31	.73		21	.79
	23	.86		10	.92		42	.83		36	.92
	19	.89		32	1.00		51	.92		49	1.00
	34	.92			50	.95					
	28	.94			29	1.00					
	9	.96									
8	.98										
16	1.00										
요인5	44	.53	요인6	43	.68	요인7	27	.56			
	14	.73		17	.88		24	.73			
	40	.86		33	1.00		38	.76			
	52	.91			39	.93					
	53	.95			1	1.00					
41	1.00										

아픈 사람 돌봐주기와 요인 7, 양보 및 자기희생은 한국의 가족주의적이고 집단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는 집단주의적인 특성이 잘 드러나는 문항들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보다 타당한 문항을 추출하기 위해 하위요인별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방법은 각 요인의 개별문항 점수를 합하여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개별문항을 추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설명력이 2% 이상인 문항만을 척도구성에 포함시켰다. 요인별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하위요인별로 단

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별문항을 추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설명력이 2% 미만인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37문항 모두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척도구성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문항양호도

37문항으로 구성된 친사회적 행동 척도의 문항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하위영역별로 응답총점분포의 상·하위 25%를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나눈 뒤 집단별 차이가 나는지를  $\chi^2$  검증

<표 4> 문항양호도 분석결과

요인별 하위영역	문항 번호	평균	표준 편차	문항- 척도간 상관계수	$\chi^2$	Cramer's V계수	요인별 하위영역	문항 번호	평균	표준 편차	문항- 척도간 상관계수	$\chi^2$	Cramer's V계수
요인1. 친사회적 가치지향	19	2.55	1.02	.57	39.07*	.56	요인5. 인화 (人和)	44	3.06	1.17	.66	49.87*	.53
	22	3.84	1.15	.68	81.84*	.79		41	3.92	1.08	.48	48.19*	.61
	35	2.68	1.22	.70	58.11*	.67		40	3.29	1.13	.59	36.02*	.53
	16	2.70	1.25	.57	42.78*	.57		52	2.69	1.20	.57	38.86*	.55
	9	2.82	1.21	.56	58.17*	.68		14	3.22	1.32	.51	50.64*	.66
	28	2.75	1.37	.63	50.73*	.62		53	3.13	1.23	.57	57.56*	.68
	34	3.27	1.22	.61	50.59*	.62							
	23	2.78	1.28	.51	46.36*	.60							
8	3.30	1.19	.43	49.23*	.62								
요인2. 아픈사람 돌봐주기	54	2.94	1.29	.66	68.57*	.69	요인6. 협동	17	3.86	1.13	.43	56.46*	.68
	32	3.53	1.19	.63	69.30*	.70		33	3.02	1.15	.68	86.80*	.83
	10	2.40	1.12	.64	68.92*	.70		43	3.08	1.09	.72	97.15*	.89
	13	2.61	1.44	.57	83.91*	.79							
요인3. 위안 및 사회평등 실천	42	3.23	1.18	.60	46.65*	.62	요인7. 양보 및 자기희생	24	3.13	1.24	.60	80.87*	.81
	50	3.02	1.27	.62	57.48*	.71		38	3.60	1.09	.61	90.93*	.85
	31	3.51	1.30	.54	87.73*	.85		27	3.37	1.23	.61	89.28*	.84
	11	3.60	1.22	.65	78.74*	.81		1	3.03	0.95	.71	89.14*	.75
	29	3.67	1.18	.61	87.45*	.85		39	3.08	1.14	.74	98.14*	.80
51	3.05	1.38	.54	51.89*	.66								
요인4. 돕기	36	3.71	1.18	.58	74.13*	.73							
	15	3.66	1.18	.68	79.60*	.75							
	21	2.64	1.08	.53	55.27*	.63							
	49	3.49	1.09	.64	82.64*	.79							

\* $p < .0001$

하고 문항양호도를 판별하기 위해 Cramer's V계수를 산출하였다.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x^2$  및 Cramer's V계수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8개 하위영역의 37문항의  $x^2$  값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p < .0001$ ), Cramer's V계수가 .53~.89로 만족스러운 판별도를 보이고 있다.

#### 4. 신뢰도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아동용 친사회적 행동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 지수인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전체는  $\alpha = .83$ 으로 나타났고, 각 요인별 계수는 .75~.86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5> 친사회적 행동척도의 문항 수 및 신뢰도 계수

행동척도 하위요인	문항수	Cronbach's $\alpha$
요인1. 친사회적 가치지향	9	.75
요인2. 아픈사람 돌봐주기	4	.78
요인3. 위안 및 사회 평등 실천	6	.76
요인4. 돕기	4	.78
요인5. 인화(人和)	6	.75
요인6. 협동	3	.79
요인7. 양보 및 자기희생	5	.77
전 체	37	.83

### Ⅲ-1. 연구문제 2의 연구방법

#### 1. 척도구성

##### 1) 친사회적 행동척도

예비조사를 통해 완성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총 75문항으로 1점에서 5점 리커드 척도이며 총점의 범위는 75점에서 365점까지이다.

##### 2) 또래평정법

또래평정에 관한 설문지는 Coie와 Dodge (1983) 및 김지신(1996)의 또래평정법 및 예비조사결과를 참고로 본 연구자가 직접 제작하여 실시하였다. 아동의 친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5문항을 제시한 후 모든 반 아동의 이름이 적힌 리스트를 나누어주어 각 아동마다 '매우 그렇다(3점)', '그저 그렇다(2점)', '거의 그렇지 않다(1점)까지 3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문항의 예를 보면 "친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잘 도와준다.", "친구에게 양보를 잘 하지 않는다."와 같은 것이다. 남학생은 각 반의 모든 남자 아동이, 여자아동일 경우는 각 반의 모든 여자아동이 평가하여 이 점수를 모두 합하여 또래평정의 점수로 하였다. 각 반마다 아동의 수가 다르기에 정확한 총점을 계산할 수는 없으나 한 반 아동의 평균을 36명이고 남녀 아동이 반정도라 보면 총점은 평균 90에서 270점대라 할 수 있다.

##### 3) 교사평정법

김지신(1996), 박주희와 이은혜(2001) 및 Doescher (1986)의 교사용 친사회적 행동검사 및 예비조사결과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8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선생님반 아동의 이름이 적힌 리스트를 나누어 준 후 각 아동별로 '매우 그렇다(3점)', '그저 그렇다(2점)', '거의 그렇지 않다(1점)'까지 3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문항의 예를 보면 "친구들이나 학교일(청소 등)에 협조적이다."와 같은 것이다. 총점의 범위는 8점에서 24점이다.

##### 4) 나눠주기 과제

Iannotti(1985)의 나눠주기 과제를 번역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인기 있는 C사의 사탕 5개를 설문지 작성에 참여

한 아동들에게 보상으로 준 다음, 가난해서 사탕 같은 간식을 먹을 수 없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며, 이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사탕을 자신의 이름이 쓰여진 봉투 안에 넣으라고 하였다. 아동들의 친사회적 행동참여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측정시점을 아동들이 간식을 먹고 싶어 하는 오후 2시에서 3시경으로 하였다. 친구에게 나누어준 사탕의 개수가 측정점수가 된다.

5) 전체점수

친사회적 행동척도, 또래평정, 교사평정 및 나눠주기 과제의 점수를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2. 자료분석

동일아동을 대상으로 여러 친사회적 행동척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1. 연구문제 2의 결과 및 해석

동일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친사회적 행동척도, 또래평정, 교사평정 및 나눠주기 과제 간의 상관을 알아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문지를 이용한 친사회적 행동척도는 또래평정( $r=.32 p<.01$ ), 교사평정( $r=.38 p<.001$ ) 및 전체점수( $r=.91 p<.001$ )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즉 자기가 스스로 평정하기를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아동일수록 또래나 교사에 의해서도 그러하다고 평가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눠주기 과제의 경우 전체점수를 제외한 다른 측정유형과 아무런 상관을 보이지 않았기에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성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척도를 개발하고 평가방법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한국에서 사용되는 친사회적 행동척도가 대부분 외국의 것에 의존하고 있으며 친사회적 행동의 유형도 우리나라 아동의 특성에 맞는 분류가 없다는 사실에 착안, 한국 아동으로부터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신술문을 직접 수집하여 한국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유형과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동일아동을 대상으로 친사회적 행동척도, 또래평정, 교사평정 및 나눠주기

<표 6> 친사회적 행동 척도별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1	2	3	4	5
1. 친사회적행동 척도	1.00				
2. 나눠주기 과제	.13	1.00			
3. 또래평정	.32**	.08	1.00		
4. 교사평정	.38***	.01	.28***	1.00	
5. 전체 점수	.91***	.09*	.65***	.49***	1.00
평균	236.25	3.36	150.84	19.12	463.31
표준편차	38.49	0.91	14.56	3.52	50.71

\* $p<.05$  \*\* $p<.01$  \*\*\* $p<.001$

과제를 측정하여 측정방법의 관련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친사회적 행동유형은 총 7가지로 ‘친사회적 가치 지향’, ‘아픈 사람 돌봐주기’, ‘위안 및 사회 평등 실천’, ‘돕기’, ‘인화(人和)와 ‘양보 및 자기희생’으로 나타났다. 박경자(1999)는 친사회적 행동을 돕기, 나누기, 협동하기로 분류하였고, 이영주(1990), 이해주(1996)은 도움, 협동, 나눔, 위안행동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분류하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자들이 제시한 척도를 거의 다 포함하며 ‘인화’, ‘양보 및 자기희생’이라는 새로운 영역까지 포함함으로써 아동의 다양한 친사회적 행동 측정을 가능하게 해 준다. 또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친사회적 가치지향 행동이 가장 큰 변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이 희생을 해야 한다는 인화와 자기희생에 관한 문항이 추가되어 우리나라 전통의 가족주의적,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한국아동에게 친사회적 행동을 직접 기술하게 한 결과 기존의 척도에는 없는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 친사회적 행동척도가 구성되었다. 즉 친사회적 가치지향 문항에서 ‘친구나 가족이 준 선물이 맘에 들지 않더라도 좋다고 말한다’, ‘친구나 가족이 내 물건을 부수었는데 화내지 않고 괜찮다고 말 한 적이 있다.’ 등과 같은 문항이 포함된 척도가 구성됨으로써 한국 아동의 실질적인 친사회적 행동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셋째, 37문항으로 구성된 친사회적 행동척도의 타당도 검증결과 7개의 요인이 명료하게 나타났으며, 문항양호도를 검증한 결과 37문항의  $\chi^2$  값

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고( $p < .0001$ ), Cramer's V 계수도 .53 ~ .89로 만족스러운 판별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요인별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가 요인별로 .75 ~ .86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본 척도는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넷째, 다양한 친사회적 행동 측정방법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동일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친사회적 행동척도, 도래평정, 교사평정 및 나눠주기 과제간의 상관을 알아본 결과 나눠주기 과제를 제외한 측정방법간에는 정적인 상관을 보여주었다. 기존의 많은 국내외 연구들(Bar-Tal, 1980; 김지신, 1985; 양성은, 1995; 신현옥, 1995)이 나눠주기 과제로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성향을 정확히 대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즘의 아동들이 먹을 것이 풍부해져서 사탕을 나누어주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추후에 좀더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척도의 하위 영역 중 문항수가 적은 영역에 문항보완과 검사-재검사 신뢰도의 산출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을 관찰하는 자연관찰법과 다른 방법간의 관련성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의 실정에 맞는 친사회적 행동유형과 척도를 개발하고, 측정유형간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사회문화적 규범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후속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김지신(1985). 어머니의 훈육방법과 아동의 감정이입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경자(1999).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 *대한가정학회지*, 37(1).
- 신현옥(1996). 자신과 타인이해 활동이 유아의 자아개념, 조망수용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진숙(1991).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주(1996). 친사회적 행동훈육이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추론, 사회적 책임감, 친사회적 행동동기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선희(1991).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사회적 조망수용능력과의 관계연구- 나눠주기 · 회사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현희(1995).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한국아동과 일본아동의 비교.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ar-Tal.(1976). *Prosocial Behavior : Theory and research*. Washington : Hemisphere Publishing Corporation.
- Eisenberg, N., Fabes, R. A., Miller, P. A., Fultz,, Shell, R., Mathy, R. M., & Reno, R.(1989). The relation of sympathy and personal distress to prosocial behavior : A multimethod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1), 55-66.
- Fey, W. F.(1995). Acceptance by others and its relation to acceptance of self and others : A reevaluati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0, 274-276.
- G. Carlo., & B. A. Randall(2002). The development of a measure of prosocial behavior for late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31. no.1. February, 2002. 31-44.
- Hoffman, M. L.(1981)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motivation : Empathy and guilt. In N. Eisenberg.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pp 281-314). New York. Academic Press.
- Iannotti, R. J.(1985). Naturalistic and structured assessment of prosocial behavior in preschool children : The influence of empathy and oersrective tak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1, 46-55.
- Moore, S. G.(1982) Prosocial behavior in the early years : Parent and peer influence. *Handbook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New York. : A Division of MacMillan of Publishing Co., Inc.
- Mussen,P., Eisenberg, N.(1977) *The roots of caring, sharing, and helping :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San Francisco : W. H. Freeman and Company.
- Rushton, J. P.(1980). Socialization and the altruistic behavior of children. *Psychological Bulletin*, 83 (5), 898-913.
- Underwood, B., & Moore, B. S.(1982). Perspective-taking and altruism. *Psychological Bulletin*, 91, 143-173.
- Weir, K., & Duveen, G.(1981). Further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rosocial behavior questionnaire for use by teacher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2(4), 357-374.
- Wrightsmann, L. S.(1974). *Assumptions about human nature : A social-psychological analysis*. Monterey, CA : Brooks/Cole.

2005년 2월 22일 투고 : 2005년 5월 3일 채택